해양치유센터·약산 치유의 숲 등
200억 규모 지역 경제 파급효과
최대 5박6일 장기 프로그램 운영
의료 산업 연계…'반값 여행' 지원

지난해 열린 해양치유 전국 맨발 걷기 축제에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맨발로 걷는 사람들 모습.
〈완도군 제공〉

완도 해양치유 체류형 방문객 5개월만 80만명 '육박'

완도군이 국내 최초 해양치유 시설을 거점으로 80만명에 육박하는 체류형 방문객을 유치하며 200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두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31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완도해양치유센터 방문객 14만600여명과 청산 해양치유공원 및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 연계 시설 치유객 65만7천여명을 합쳐 총 79만7천6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대규모 치유객 유입은 관내 숙박시설 이용과 식음료 및 특산품 소비로 직결돼 200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불러왔다.

단순 당일치기 위주의 관람형 관광을 넘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심신을 회복하는 '체류형 치유' 모델을 정립해 부족한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난대림을 활용해 해양치유, 산림치유, 섬 투어, 특화 식단 체험 등을 결합한 1박2일에서 최장 5박6일 일정의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단순한 치유객 유입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 상태와 심리 변화를 정밀 분석해 객관적인 치유 효과를 검증하는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축적된 과학적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양치유의 표준화 및 제도화를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보험 산업과 연계한 확장형 웰니스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장기 체류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 해안형 산림 치유 공간인 약산 해안치유의 숲을 적극 연계해 다도해 풍광을 조망하는 테마 숲길과 청정 해수 온열 치유실을 집중 가동한다.

체류에 따른 여행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숙박시설과 식당 등에서 지출한 경비의 50%를 지역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완도 반값 여행' 지원책도 마련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완도문화관광 누리집에 치유 시설 방문 사진과 여행 후기를 남긴 관광객을 별도로 추첨해 특산물인 전복을 증정하는 마케팅 이벤트도 전개하며 꾸준한 재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에서의 치유 활동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삶을 충전하는 과정"이라며 "완도의 바다와 숲, 섬을 아우르는 거대한 통합 치유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함평군, 농촌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 성과 빛났다

신광면 보여리,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827곳 경합…'성과확산형 모델' 주목

함평군이 정부 주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우수사례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 활력 모델을 전국에 입증했다.

31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신광면 보여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 11년간 추진된 개조사업의 실적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우수사례 평가는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완료 또는 진행된 전국 827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전문가 1차 심사와 컨설팅을 거쳐 최종 5개 마을이 발표 대상지로 선정돼 경합을 벌였다.

현장 발표에서 군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사업 완료 이후에도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는 '성과확산형 모델'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주민 스스로 마을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에 동참해 사업 효과를 지역 전반으로 넓힌 점이 현장 평가단의 가장 높은 점수를 이끌어냈다.

평가 결과 최고상인 대상과 함께 500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하며 정주 여건 개선 선도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주민과 행정,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협력해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사업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 모델을 구축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500년 전통 '영광법성포단오제' 손님맞이 채비

郡, 18일 축제 개막 안전·교통 등 점검

영광군은 31일 "오는 6월18일 개막하는 서해안 대표 전통축제 '2026 영광법성포단오제'를 앞두고 전방위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가동하며 손님맞이 채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부군수와 법성포단오제보존회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은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시달회의를 가졌다.

법성포뉴타운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의 교통·안전 대책과 편의시설 운영 등 세부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대규모 인파 밀집에 대비해 주차장 확보와 구급차 배치 등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 및 위생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난장마당 푸드트럭존과 야간 경관조명 등 체류형 콘텐츠를 확대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올해 행사는 '화조풍락'을 주제로 용왕제·선유놀이 등 국가무형유산 공개 행사와 씨름대회 등 다채로운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법성포단오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무형유산인 만큼 기관 간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목포 하당청소년센터, 청소년 '우선 정책과제' 제안

목포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소통의 장을 열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31일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 따르면 목포시청소년참여위원회 18기는 최근 청소년의달 기념행사와 연계해 '2026 목포 청소년 정책마켓'을 개최하고 '2026-2027 목포시 청소년 우선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청소년들이 제안한 '청소년 100원 버스'가 실제 제도로 도입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청소년 주도형 맞춤 정책 발굴에 나선 것이다.

현장에서는 미래인재교육과 문화예술, 인권·복지 등 다방면에 걸친 실생활 밀착형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사진〉

특히 청소년과 교육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전담 부서인 '(가칭)청소년교육과' 신설과 하당 장미의거리를 문화와 상권이 상생하는 '목포형 청소년 행복거리'로 리브랜딩하는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채택돼 눈길을 끌었다.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관계자는 "이들의 목소리가 시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참여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진도군, 스마트 김 종자 시설 구축 본격화

해수부 공모 선정 사업비 54억 확보

진도군은 31일 "해양수산부 주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54억원을 확보하며 스마트 김 종자 생산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첨단 친환경 양식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급변하는 해양 기후에 대비해 군은 수온과 조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김 종자 생산 및 육상채묘 시설'을 관내에 도입한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해 고부가가치 해조류 종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2천400억원 규모의 물김 위판액을 기록하는 전국 최대 김 생산지임에도 20%에 머물고 있는 관내 종자 보급률을 향후 35%까지 대폭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오는 2027년 군내농공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지역맞춤형 수산종자 실용화센터'와 연계해 108억원 이상의 생산 유발효과와 39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시설 구축은 종자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 소득 증대와 해양환경 보호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 양식어업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해남군, 오는 11일 '여름밤 문화축제' 개막

군민광장 일원서…트로트·힙합 등 공연

해남군은 31일 "오는 6월11일부터 이틀간 해남군민광장 일원에서 지역 예술인과 대중가수가 출연하는 '여름밤의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군민광장을 중심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 행사로 기획됐다.

행사는 양일간 오후 7시부터 지역 예술인들의 무대를 시작으로 대중가수들의 장르별 특화 공연이 차례로 이어진다.

축제 첫날인 11일에는 김수찬과 요요미, 손빈아, 진이랑 등이 무대에 올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중 트로트 공연을 선보인다.

이튿날인 12일에는 힙합 그룹 다이나믹듀오를 비롯해 펀치, 가비엔제이, 모리아 등이 출연해 발라드와 힙합을 결합한 특화 무대를 연출한다. 군민광장 음악분수와 어우러진 야외 야간 공연을 통해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고 주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남=박필용 기자

나주 천연염색박물관, 10월까지 '행복학습센터' 운영

바느질·업사이클링 등 생활 밀착형 교육

나주시는 31일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지역주민의 창작 활동과 문화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행복학습센터'를 개설해 생활 문화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 기술 기반 교육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창작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맞춤형 과정으로, 오는 10월까지 박물관 교육 공간에서 운영된다.

세부 교육은 '소곤소곤 바느질 이야기'와 '옷장 정리 프로그램' 등 2개 과정으로 나눠 과정별 20회씩 총 40차시 규모로 진행된다.

바느질 과정은 손바느질 기법으로 애착 인형 등 다채로운 소품을 제작하며, 옷장 정리 과정은 자투리 원단을 버킷햇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친환경 업사이클링 실습을 병행한다.

/나주=정종환 기자

CMYK